



신간 'MIS2.0 디지털 비즈니스'

(권태형, 우현종 저, 2015. 8. 28, 율곡출판사)를 드리며

정보 혁명과 인터넷 혁명 이후 세상은 평평해졌지만 자동화도 온라인도 더 이상 경쟁력의 원천이 아니라 'me-too'일 뿐이며 마스터 플래닝도 4-5년마다가 아니라 2-3년마다 해야 하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원가절감을 넘어 원가제로를, 생산공장은 디지털 공장을, 가치사슬은 가치 네트워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비즈니스의 이성적 판단의 문을 두드렸지만, 소셜 테크놀로지는 비즈니스 생태계의 집단지성과 감성의 문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봉이 김선달'식 디지털 비즈니스 (예, Uber, Airbnb, Facebook)까지 등장시키며 산업계와 엔터프라이즈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가치경로(value path) 플랫폼 사고와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 덕분에 가능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아침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나 스마트 경쟁자에 의해 교란 당하기 전에 먼저 교란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서를 준비했습니다. 부족하나마 본서가 변혁의 시대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여기 정중히 드리는 바입니다.

2015년 8월.

저자 권태형 배상

thkwon@hufs.ac.kr

저자 우현종 배상

goo9goo@gmail.com